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相生相和】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나이, 성별, 피부색, 가치관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다. 문제는 ‘다름’ 그 자체가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공자는 “和而不同(화이부동)”이라 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의견이 있고, 그 차이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멀어지고,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존중과 배려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이고, 배려는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작은 신경을 쓰는 행동이다.

적당한 거리도 중요하다. 공자가 말한 “敬而遠之(경이원지)”처럼, 공경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래간다. 너무 가까이 붙어 숨 막히게 하지 않고,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일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가 된다. 짧은 날 술하게 오갔던 만남과 인연은 하나둘 줄어들고,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친구의 부고 소식이 찾아지고, 자식들도 저마다의 삶을 살며 멀리 떨어져 지낸다. 그럴수록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더없이 귀하게 여겨진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단 한 사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노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된다.

휴대폰 속에 수백 명의 ‘친구’를 두고 살지만, 정작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래서일까. 짧은 문자 한 줄, 따뜻한 눈빛 하나가 때로는 장황한 연설이나 풍성한 식탁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옛사람들은 벼를 사꺾에 있어 신의(信義)를 으뜸으로 여겼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는 제2의 재산”이라고 했다. 화려한 말보다 변치 않는 믿음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이 계절, 내 곁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본다.

가족이라는 뿌리, 친구라는 울타리, 노년의 고요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작은 인연들….

바람결에 실린 짧은 안부 한마디가 오래된 등불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환히 밝히길 바란다.

결국 인간관계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맺은 연결이다.

相生相和(상생상화) - 서로 살리고 서로 화합할 때, 나도, 상대도,
우리 사회도 행복해진다.

오늘 하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보는 건 어떨까.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10. 1.)
참여자 이인영 단장 님